

# 육류의 유통형태를 혁신하는 선구자역을...



韓錫紘  
한국축산학회 회장  
한국식육연구회장

육류의 유통형태를 혁신하는 선구자역을 담당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매체로서,  
더 나아가서는 관이나 축협, 학회 및 각 협회간에 유대를  
강화하여 양축가나 기업들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 타협점을 모색하고.....

먼저 한국육가공협회의 발족과 더불어 육가공회지를 창간하게 됨을 한국축산학회 회원과 한국식육연구회 회원을 대신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육류의 처리 가공 및 유통을 맡아 온 육가공협회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치하해 마지 않으며 회지창간을 경축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해방 후 '60년대에 이르기까지 황무지와 다름 없었던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그동안 수 없이 되풀이 되었던 파동과 불황을 진통을 겪으면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82년 191.8kg으로 4년 사이 12.9kg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1인당 소비량은 86년 147.9kg으로 4년전 대비 무려 41.4kg이 많은 3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축산물과 양곡의 소비 양상이 반전(反轉)되고 있는 것은 국민소득의 성장과 함께 양축가를 비롯한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육류를 최종적으로 처리, 가공하여 소비자에 공급 하여준 회원사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육가공업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육류의 상품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공과 유통과정이 복잡함으로 수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원료육 수급과동을 계절병처럼 앓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든 축산물이 수요에 비해 과잉생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자구책을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의 강화와 시장개방을 강요 당하고 있어 이미 닭고기, 돼지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부산물 등 육류의 완제품이 도입되어 포성없는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길은 오로지 하나뿐, 국력을 길러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게 이루어 놓은 축산 기반을 더욱 지키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반농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행정력과 투자비중을 축산업 발전에 과감하게 분산하는 이른바 혁신적 농업정책과 함께, 양보다는 질 위주의 축산물을 생산, 가공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유통구조의 개선 등 제2의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육가공협회의 회지 창간은 그 책임감과 사명감에 있어서 어느 때 보다도 높아야 할 것이며, 육류의 유타 형태를 혁신하는 선구자역을 담당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매체로서, 더 나아가서는 판이나 축협, 학회 및 각 협회간에 유대를 강화하여 양축가나 기업들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 타협점을 모색하고, 산학협동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과 신속한 유통 정보의 전달자로서 충실히 수행해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한 격려와 무궁한 발전을 하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